

제7회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 참가



협회, 조합, 연구원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상암동에서 개최된 제7회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협회(회장 이상일), 조합(이사장 김기석), 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회 건설인 하프마라톤'에 참가해 체력단련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행사인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에는 이상일 회장, 김기석 이사장 및 협회·조합·연구원 임직원이 참가했다. 회원사로는 (주)정도설비[대표 이상일·이상천], 세일이엔에스(주)[대표 심기석], 건우기계설비(주)[대표 김재하] 임직원이 참가했다.

또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한국

건설교통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등 건설단체장과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 송석준 국회의원 당선인, SH공사 변창흠 사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건설인 및 일반 참가자 1만여명이 참가해 평화의 광장 일대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에는 마라톤 동호인을 위한 하프코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4.5km 걷기와 5km, 10km, 하프 코스도 마련되었으며,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도 건설인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주최자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는 건설인들과 그들이 봉사하는 일반 시민이 서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며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희망을 갖고 이겨내다 보면 결승선이 보이는 마라톤처럼 반가운 미래가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이번 대회는 건설인이 흘린 땀과 노력을 공감하는 축제의 장인



이상일 회장

만큼 기록보다 완주를, 그리고 지인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참가자 모두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